Check for updates

JFMSE, 38(5), pp. 1273~1287, 2026.
수산해양교육연구, 제38권 제5호, 통권143호, 2026.
www.ksfme.or.kr
https://doi.org/10.13000/JFMSE.2026.10.38.5.1273

한국산 굴의 수출시장별 경쟁력 분석

황산산 · 박혜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전문연구원 · †부연구위원)

An Analysis of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Korean Oysters across Major Import Markets

Shan-Shan HUANG · Hye-Jin PARK†
Korea Maritime Institute(senior researcher·†associate research fellow)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Korean oysters, focusing on frozen (HS 030712) and prepared (HS 160551) oysters, which together account for about 97% of Korea's oyster exports. Using 2017–2025 trade data, competitiveness is assessed through market share (MS), the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and its symmetric variant (RCA, RSCA), a market-specific comparative advantage index (MCA), and relative unit export value (RUV).

Korea holds a comparative advantage in both products, but the patterns diverge: frozen oysters lead in market share yet rank second in RCA behind New Zealand, with share declining as Japan and China expand; prepared oysters trail China in share but rank first in RCA. At the market level, Korea's advantage covers less than half of global frozen-oyster imports, with declining shares in Hong Kong and Taiwan, while prepared oysters maintain an advantage across a larger share of import markets despite limited penetration in Canada. Korean frozen oysters occupy an intermediate price position between lower-priced Chinese and U.S. products and higher-priced Japanese, French, and New Zealand products. The findings highlight the need to defend declining markets, develop untapped ones, and address market access barriers, as illustrated by Australia's import restrictions.

Key words : Oyster, Export competitiveness, RCA, MCA, RUV

I. 서 론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은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산업 육성 등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2025년에는 약 33.2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였다. 다만, 주요 수출시장과 일부 품목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안정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국제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국가별 수요와 수입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특정 품목이나 시장에 집중된 수출구조는 대외 여건 변화에 취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주력 수출품목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성장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발굴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굴은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의

† Co-Corresponding author : 051-797-4912, phj3112@kmi.re.kr
※ 이 논문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비(해외시장분석센터사업)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이 논문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수행한 사업조사보고서(황산산 외, 2024)의 일부를 인용 및 재분석한 것임

중요한 품목 중 하나이다. 국내에 비교적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냉동품과 가공품 등을 중심으로 해외시장에 지속적으로 수출되고 있다. 특히 세계 굴 교역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주요 수출국 중 하나로 자리하고 있으며, 냉동굴의 경우 세계시장에서 높은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 및 수출 여건을 고려할 때 굴은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의 품목 다변화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은 품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굴 수출은 일부 국가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구조를 보이고 있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 기준 일본과 미국에 대한 평균 수출 비중은 전체 굴 수출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세계 굴 시장은 활·신선·냉장품, 냉동품, 가공품 등 품목 형태에 따라 주요 수출국과 교역 구조가 상이하게 형성되어 있어, 국가별 시장 특성과 경쟁 여건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굴 수출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단순한 수출 규모의 변화뿐만 아니라 세계 굴 시장에서 한국산 굴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 수준과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세계 굴 산업 및 교역 동향과 국내 굴 산업 및 수출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수출시장에서 한국산 굴의 수출 경쟁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세계시장 차원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개별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굴의 상대적 지위와 변화 방향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시장별 경쟁력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세계 굴 시장에서 한국산 굴의 경쟁적 위치와 주요 시장별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우리나라 굴 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굴 산업 및 수출 관련 선행연구

굴 산업 및 수출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굴을 직접 대상으로 국내 산업의 생산구조와 국제 교역 관계를 분석한 연구와 수산물 전반을 대상으로 교역구조 및 수출 경쟁력을 분석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먼저 국내 굴 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Kim and Lee(2022)는 굴 양식업의 구조변화와 당면 과제를 분석하고 향후 산업 재편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내 굴 양식업은 생산량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양식시설의 과밀화, 노동력 부족, 위생·안전성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굴 양식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성 향상과 위생·안전성 확보, 새로운 수요처 발굴과 함께 수출 품목 및 수출 국가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굴을 포함한 수산물 전반의 국제 교역구조를 분석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Kim(2013)은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여 국가 간 수산물 수출입 네트워크의 구조와 특성을 분석하였고, Park(2014)은 가다랑어, 굴, 넙치, 오징어, 황다랑어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 수산물을 대상으로 세계 무역 네트워크와 한국을 중심으로 한 무역 네트워크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주요 수출 수산물의 국제 교역구조에서 한국의 위치를 파악하고 수산물 무역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Park et al.(2015)은 굴을 직접 대상으로 사회연결망 분석을 적용하여 세계 굴 무역 네트워크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UN Comtrade의 46개국 수출입 자료를 이용하여 1996~1997년과 2011~2012년의 굴 교역 네트워크와 국가별 중심성 변화를 비교한 결과, 세계 굴 교역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중심성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굴 무역 네트워크가 세계 굴 교역구조와 유사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한국과의 교역 네트워크에서 매개 중심성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수출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한편, 수산물의 비교우위와 수출 경쟁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이루어져 왔다. Kim and Lee(2017)는 한국 수산물의 무역구조와 비교우위, 무역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무역특화지수, 가격·품질 경쟁력 및 산업내무역지수 등을 활용한 분석을 통해 국가와 품목에 따라 수산물의 무역구조와 경쟁력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수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 품목의 다양화와 고부가가치화, 가공·유통 인프라 조성 및 해외시장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Seo et al.(2024)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과 주요 수산물 수출국을 대상으로 시장점유율(MS), 무역특화지수(TSI), 현시대칭비교우위지수(RSCA)를 활용하여 수출 경쟁력을 비교하였다. 냉동어류, 어류 필렛 및 기타 어육, 연체동물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의 수출 경쟁력은 품목별로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연체동물은 수출특화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시장점유율과 비교우위 측면에서는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굴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는 주로 국내 생산구조나 세계 교역 네트워크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수출 경쟁력에 관한 연구는 수산물 전체 또는 주요 품목군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국내외 굴 산업 및 교역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한국산 굴의 세계시장 차원의 경쟁력을 분석하는 한편, 시장별 비교우위지수(MCA)를 활용하여 개별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굴의 상대적 지위와 변화 방향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세계시장 전체의 지표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시장별 경쟁력의 차이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2. 세계 굴 산업 동향

가. 세계 굴 생산 동향

세계 굴 생산량은 최근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FAO에 따르면 2020년 646만 톤에서 2021년 688만 톤, 2022년 728만 톤, 2023년 771만 톤으로 증가하였으며, 2024년에는 830만 톤을 기록하였다. 2020년과 비교하면 2024년 세계 굴 생산량은 약 28.5% 증가한 수준이다(<Table 1>).

국가별로는 중국이 세계 굴 생산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의 굴 생산량은 2020년 543만 톤에서 2024년 725만 톤으로 증가하였으며, 2024년 기준 세계 굴 생산량의 87.4%를 차지하였다. 한국은 같은 해 32만 5천 톤을 생산하여 세계 생산량의 3.9%를 차지하였으며,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굴 생산국이다. 이어 미국 20만 9천 톤(2.5%), 일본 14만 9천 톤(1.8%) 등의 순으로 생산량이 많았으며, 상위 4개국이 세계 굴 생산량의 95.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생산 방식별로 살펴보면 세계 굴 생산은 대부분 양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2024년 기준 양식 굴 생산량은 819만 3천 톤으로 전체 생산량

<Table 1> Global Oyster Production by Country and Production Method (2020-2024)

Unit : 1,000 tons, %

Category		2020	2021	2022	2023	2024	Share (2024)
Total		6,461	6,884	7,278	7,706	8,300	100.0
Country	China	5,425	5,819	6,200	6,671	7,252	87.4
	Korea	326	330	333	332	325	3.9
	USA	189	217	223	217	209	2.5
	Japan	159	159	166	149	149	1.8
	Others	363	359	356	337	364	4.4
Method	Aquaculture	6,383	6,782	7,181	7,608	8,193	98.7
	Capture	78	101	96	97	107	1.3

Source : FAO FishStatJ

의 98.7%를 차지한 반면, 어획을 통한 생산량은 10만 7천 톤으로 1.3%에 불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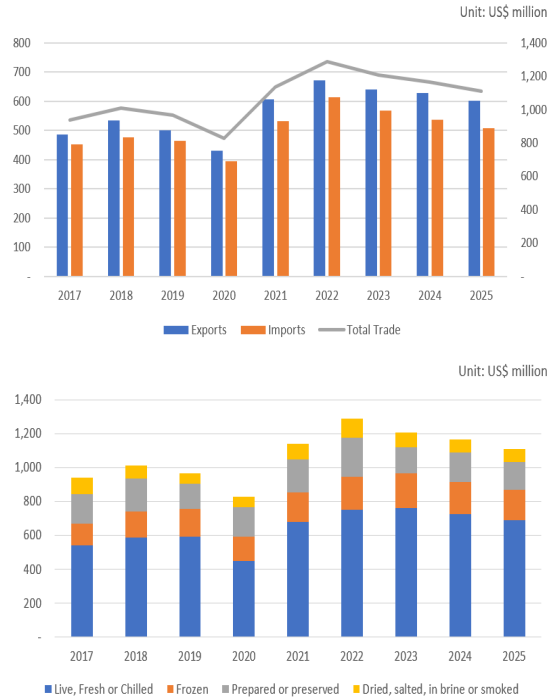
나. 세계 굴 교역 동향

세계 굴 교역액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826백만 달러까지 감소한 이후 빠르게 회복되어 2022년 1,286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25년에는 1,109백만 달러로 나타났다. 2025년 기준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601백만 달러와 508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품목별로는 활·신선·냉장굴이 세계 굴 교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지속적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냉동굴과 조제굴 등이 그 뒤를 잇는 구조이다.

최근 3년(2023~2025년) 평균 기준 세계 굴 수출액은 약 622.1백만 달러로 나타났다(<Table 2>). 주요 수출국을 살펴보면, 프랑스가 143.4백만 달러로 전체의 23.1%를 차지하였으며, 중국 87.4백만 달러(14.1%), 한국 78.9백만 달러(12.7%), 캐나다 61.5백만 달러(9.9%), 아일랜드 42.3백만 달러(6.8%) 순이었다. 한국은 프랑스와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굴 수출국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주요 수출 품목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최근 3년 평균 수출액의 대부분이 활·신선·냉장굴로 구성되어 있으며, 캐나다와 아일랜드 역시 활·신선·냉장굴 중심의 수출구조를 보였다. 반면 중국은 조제굴이 수출액의 62.9%를 차지하였고, 한국은 냉동굴 61.9%, 조제굴 34.8%로 두 품목에 수출이 집중되어 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 평균 세계 굴 수출액 가운데 활·신선·냉장굴이 372.2백만 달러로



Source : ITC Trade Map

[Fig. 1] Global Oyster Trade by Trade Flow and Product Type (2017-2025)

전체의 59.8%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조제굴과 냉동굴은 각각 97.9백만 달러(15.7%), 94.0백만 달러(15.1%)로 비슷한 규모를 보였다. 활·신선·냉장굴 수출은 프랑스가 38.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캐나다(16.5%), 아일랜드(11.1%)가 주요 수출국으로 나타났다. 조제굴은 중국이 세계 수출액의 56.1%를 차지하였으며, 한국(28.1%), 일본(9.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냉동굴은 한국의 비중이 52.1%로 세계 수출액의 절반

<Table 2> Global Oyster Exports by Major Exporting Country (2023-2025)

Unit : US$ million, %

Country	2023	2024	2025	3-year Average	Share	Major Product Type
World	638.8	626.9	600.7	622.1	100.0	-
France	148.6	140.0	141.7	143.4	23.1	Live, fresh or chilled (98.6%)
China	87.7	94.0	80.6	87.4	14.1	Prepared or preserved (62.9%)
Korea	86.0	76.6	74.1	78.9	12.7	Frozen (61.9%)
Canada	67.1	62.3	55.2	61.5	9.9	Live, fresh or chilled (99.7%)
Ireland	41.8	40.5	44.6	42.3	6.8	Live, fresh or chilled (97.7%)

Source : ITC Trade Map

이상을 차지하였고, 이어서 일본(26.7%), 뉴질랜드(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2023~2025년) 평균 기준 세계 굴 수입액은 약 537.5백만 달러로 나타났다(<Table 3>). 미국이 123.0백만 달러로 세계 수입액의 22.9%를 차지하였으며, 홍콩 50.3백만 달러(9.4%), 이탈리아 49.1백만 달러(9.1%), 프랑스 44.4백만 달러(8.3%), 일본 34.5백만 달러(6.4%) 순이었다.

국가별 주요 수입 품목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미국은 최근 3년 평균 수입액 가운데 활·신선·냉장굴이 5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조제굴 29.2%, 냉동굴 12.5%의 순이다. 홍콩 역시 활·신선·냉장굴이 54.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냉동굴은 21.7%로 나타났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활·신선·냉장굴 비중이 각각 94.6%, 99.5%로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일본은 냉동굴 비중이 84.1%로 높게 나타났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 평균 세계 굴 수입액 가운데 활·신선·냉장굴이 350.4백만 달러로 전체의 65.2%를 차지하였으며, 냉동굴은 98.5백만 달러(18.3%), 조제굴은 65.5백만 달러(12.2%)로 나타났다. 활·신선·냉장굴은 미국이 전 세계 수입액의 19.7%를 차지하였고, 이탈리아(13.3%), 프랑스(12.6%) 등도 주요 수입국으로 나타났다. 냉동굴의 경우 일본의 비중이 29.4%로 가장 높았으며, 미국(15.6%), 홍콩(11.1%) 등이 뒤를 이었다. 조제굴은 미국이 54.8%를 차지하여 시장 집중도가 높았으며, 캐나다와 일본의 비중은 각각 12.0%, 7.1%이다(2023~2025년 평균 기준).

3. 국내 굴 산업 및 수출 동향

가. 굴 생산 동향

우리나라 굴 생산량은 최근 30만 톤대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2년 33.4만 톤을 기록한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25년에는 31.9만 톤으로 나타났다. 생산 방식별로는 2025년 기준 해면양식업 생산량이 30.2만 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94.4%를 차지하였으며,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8만 톤으로 5.6%를 차지하여 국내 굴 생산의 대부분이 양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다. 2025년 경상남도의 굴 생산량은 23.7만 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74.1%를 차지하였으며, 전라남도는 6.8만 톤으로 21.3%를 차지하였다. 두 지역의 생산량을 합하면 국내 전체 굴 생산량의 95% 이상을 차지한다. 이외 충청남도 1.0만 톤(3.1%), 인천광역시 0.4만 톤(1.4%) 등의 순이다(<Table 4>).

굴 가격은 생산량과 수급 여건 등에 따라 연도별 변동을 보이고 있다. 산지 가격은 2021년 이후 상승하여 2023년까지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다소 하락하였다. 알굴 기준 연평균 산지 가격은 2023년 kg당 8,484원에서 2024년 7,806원, 2025년 7,594원으로 하락하였다. 도매가격 역시 전국 기준 2023년 kg당 13,991원에서 2024년 13,590원, 2025년 12,393원으로 하락하는 등 최근 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

<Table 3> Global Oyster Imports by Major Importing Country (2023-2025)

Unit : US$ million, %

Country	2023	2024	2025	3-year Average	Share	Major Product Type
World	567.2	537.2	508.0	537.5	100.0	-
United States	124.2	126.5	118.4	123.0	22.9	Live, fresh or chilled (56.1%)
Hong Kong	57.3	51.3	42.1	50.3	9.4	Live, fresh or chilled (54.6%)
Italy	52.2	46.7	48.4	49.1	9.1	Live, fresh or chilled (94.6%)
France	42.6	43.3	47.4	44.4	8.3	Live, fresh or chilled (99.5%)
Japan	39.4	32.8	31.2	34.5	6.4	Frozen (84.1%)

Source : ITC Trade Map

<Table 4> Oyster Production in Korea (2021-2025)

Unit : 1,000 tons, %

Category		2021	2022	2023	2024	2025	Share (2025)
Total		329.9	333.5	331.8	325.3	319.4	100.0
Method	Aquaculture	305.9	310.5	310.8	310.1	301.6	94.4
	Capture	24.0	23.0	21.1	15.2	17.7	5.6
Region	Gyeongsangnam-do	257.0	262.7	247.7	247.0	236.5	74.1
	Jeollanam-do	58.2	57.5	64.2	63.0	68.0	21.3
	Chungcheongnam-do	8.3	9.4	9.0	10.0	9.8	3.1
	Incheon	2.7	2.8	10.7	5.0	4.4	1.4
	Others	3.7	1.1	0.2	0.3	0.7	0.2

Source : Korea Statistics Service, Fishery Production Trend Survey

국내 굴 가공은 냉동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조림품과 자건품 등이 함께 생산되고 있다. 2024년 굴 가공 생산량은 약 9.0천 톤으로, 이 가운데 냉동품(처리동결)이 5.3천 톤으로 전체의 59.3%를 차지하였으며, 통조림품은 3.1천 톤(34.4%), 자건품은 0.6천 톤(6.3%)으로 나타났다. 가공 생산액은 총 583억 원으로, 냉동품이 346억 원(59.4%), 통조림품이 202억 원(34.7%), 자건품이 35억 원(5.9%)을 차지하였다.

나. 굴 수출 동향

우리나라 굴 수출량은 최근 10년간 대체로 9~10천 톤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2025년에는 10.0천 톤을 기록하였다. 수출액은 2017년 95.1백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였다가 2020년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23년 86.0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25년 74.1백만 달러로 나타났다. 수출단가는 2020년 kg당 7.6달러에서 2023년 8.3달러까지 상승한 이후 하락하여 2025년 7.4달러를 기록하였다([Fig. 2]).

품목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굴 수출은 냉동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3년 평균 기준 냉동굴 수출액은 48.8백만 달러로 전체 굴 수출액의 61.9%를 차지하였다. 밀폐용기 제품은 15.7백만 달러(19.9%), 기타 조제품은 11.8백만 달러(14.9%)로 나타나, 이들 가공품도 전체 수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반면 신선·냉장 굴은 2.0백만 달러로 2.5%에 그쳤다.



Source : Seafood Export Information Portal, Export and Import Statistics

[Fig. 2] Trends in Korean Oyster Exports (2016-2025).

<Table 5> Korean Oyster Exports by Major Destination (2023-2025)

Unit : US$ million, %

Country	2023	2024	2025	3-year Average	Share	Major Product Type
World	86.0	76.6	74.1	78.9	100.0	-
Japan	37.0	29.0	28.5	31.5	40.0	Frozen (75.3%)
USA	24.1	25.5	26.2	25.3	32.0	Frozen (56.3%)
Hong Kong	8.8	7.7	6.2	7.6	9.6	Other prepared (78.8%)
Taiwan	3.3	2.3	2.2	2.6	3.3	Frozen (83.3%)
Thailand	2.8	2.3	2.0	2.4	3.0	Frozen (99.8%)

Source : Seafood Export Information Portal, Export and Import Statistics

수출국별로는 <Table 5>와 같이 일본과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평균 기준 對일 굴 수출액은 31.5백만 달러로 전체의 40.0%를 차지하여 가장 큰 수출시장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은 25.3백만 달러로 32.0%를 차지하였다. 이어 홍콩 7.6백만 달러(9.6%), 대만 2.6백만 달러(3.3%), 태국 2.4백만 달러(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미국을 합한 비중은 약 72%로, 우리나라 굴 수출이 두 시장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수출국별 품목구조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최근 3년 평균 굴 수출액 가운데 냉동품이 75.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밀폐용기 제품이 18.9%로 뒤를 이었다. 미국 역시 냉동품이 56.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나, 밀폐용기 제품도 35.5%를 차지하였다. 반면 홍콩은 기타 조제품이 78.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대만과 태국은 냉동품의 비중이 각각 83.3%, 99.8%로 높게 나타났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범위 및 자료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굴은 HS 품목분류체계에 따라 6단위 기준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국내 교역 통계는 HSK 10단위를 적용하여 세분화하였다. 구체적인 품목 정의와 코드는 <Table 6>과 같다. 경쟁력 분석은 최근 3년 기준 한국의 굴 수출에서 각각 61.9%, 34.8%를 차지한 냉동굴(HS 030712)과 조제굴(HS 160551)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자료는 ITC Trade Map에서 제공한 굴 교역 통계를 활용하였다.

분석기간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로 설정하였다. 이는 굴의 세계 HS 코드가 통일되어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해진 시점이 2017년이기 때문이다. 분석 대상 국가는 해당 기간 연평균 50만 달러 이상을 수출한 국가로 한정하였으며, 그 결과 냉동굴은 한국·일본·뉴질랜드·중국·미국·프랑스 6개국, 조제굴은 중국·한국·일본·UAE·프랑스·네덜란드 6개국이 선정되었다.

2. 분석 방법

한국산 굴의 세계시장 경쟁력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시장점유율(MS), 현시비교우위지수(RCA), 현시대칭비교우위지수(RSCA), 시장별 비교우위지수(MCA), 상대 수출단가(RUV)를 활용하였다. 각 지표를 통해 물량 지위, 산업 특화 정도, 시장별 상대적 지위, 가격 포지션을 단계적으로 측정한다. 지표 산출식과 해석은 <Table 7>과 같다.

여기서 위첨자 i는 품목, 아래첨자 k는 분석 대상국, c는 비교 대상국, j는 개별 수입시장, w는 전 세계를 의미한다. X는 수출액, M은 수입액, Q는 수출 중량, UV는 수출단가이다. X의 아래첨자는 원산지, 목적지 순서이며, M의 아래첨자는 수입시장, 원산지 순서이다. 수출단가는 특정

<Table 6> Oyster Product Scope and Trade Codes

Product type	HS Code (6-digit)	HSK Code (10-digit)	Used in the competitiveness analysis
Live, fresh or chilled	030711	0307111090 0307119000	
Frozen	030712	0307120000	●
Dried, salted, in brine or smoked	030719	0307192000 (dried) 0307193000 (salted) 0307194000 (smoked)	
Prepared or preserved	160551	1605511000 (airtight) 1605519000 (other)	●

<Table 7> Definitions and Interpretation of Trade Competitiveness Indices

Index	Formula	Interpretation	Source
Market Share (MS)	$MS_{kw}^{i} = \frac{X_{kw}^{i}}{X_{ww}^{i}} \times 100$	Share of world exports (%)	-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RCA_{kw}^{i} = \frac{(X_{kw}^{i}/X_{kw})}{(X_{ww}^{i}/X_{ww})}$	Value > 1: comparative advantage Value < 1: comparative disadvantage	Balassa (1965)
Revealed Symmetric Comparative Advantage (RSCA)	$RSCA_{kw}^{i} = \frac{RCA_{kw}^{i} - 1}{RCA_{kw}^{i} + 1}$	Ranges from −1 to 1 Value > 0: comparative advantage	Dalum et al. (1998)
Market Comparative Advantage (MCA)	$MCA_{kj}^{i} = \frac{(M_{jk}^{i}/M_{j}^{i})}{(M_{wk}^{i}/M_{w}^{i})}$	Value > 1: above the world-average position in that market	Kwon and Kim (2021)
Relative Unit Value (RUV)	$UV_{k}^{i} = \frac{X_{k}^{i}}{Q_{k}^{i}}$, $RUV_{kc}^{i} = \frac{UV_{k}^{i}}{UV_{c}^{i}}$	Value > 1: higher unit price than the comparator country	Schott (2004)

시장이 아닌 전체 수출을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목적지를 나타내는 아래첨자 w를 생략하였다. 모든 지수는 연도별로 산출한 후 분석기간에 대해 평균하였다.

RCA는 Balassa(1965)가 제시한 지표로 1을 기준으로 비교 열위 구간이 0에서 1 사이로 압축되는 반면, 비교우위 구간은 1에서 무한대로 열려 있다. 이에 분포 비대칭으로 인해 국가 간 지수 격차가 과장되어 해석될 수 있다. Dalum et al.(1998)은 이를 보정한 RSCA를 제시하였으며, Laursen(2015)은 국가 간·시점 간 비교에 RSCA가 RCA보다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가지 지표를 모두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MCA는 특정 시장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점유율을 세계 수입시장 전체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평균적 점유율로 나눈 값이다. MCA는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2019), Han and Choi(2018), Kwon and Kim(2021) 등에서 특정 시장 내 상대적 비교우위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되어 왔다. 다만 기존 연구는 수입국 관점에서 분모를 해당 국가가 자국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설정하여 한 시장 내 품목 간 비교에 초점을 맞춘 반면, 본 연구는 수출국 관점에서 분모를 동일 품목의 세계 평균 점유율로 설정함으로써 한 품목 내 시장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지수를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기간 동안 세계 수입시장 내 한국산 비중은 냉동굴 50.4%, 조제굴 25.2%이다(ITC Trade Map, 2026).

RUV는 일반적으로 품질 수준을 근사하는 대리변수로 활용(Schott, 2004)되나 품목 내 제품 구성의 차이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제품 구성의 이질성이 큰 조제굴을 제외하고 냉동굴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MCA를 통해 확인된 시장별 지위를 정책적 함의로 연결하기 위해, MCA의 수준과 변화 방향을 교차하여 각 수입시장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Table 8>).

<Table 8> Classification of Import Markets by MCA Level and Direction

Category	MCA rising	MCA falling or unchanged
MCA ≥ 1	① Core	② Advantage to defend
MCA<1	③ Expansion potential	④ Constrained

Note: The direction of change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2017 and 2025 index values; changes smaller than ±0.05 are treated as unchang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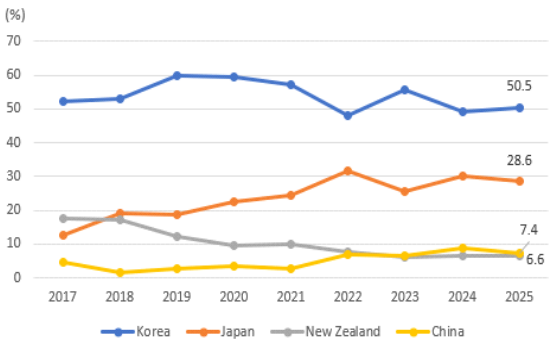
지수의 수준과 추세를 교차하여 유형화하는 방

식은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2019)에서 제시된 사례와 Kwon and Kim(2021)이 수산물에 적용한 사례를 참고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시장점유율(MS)

세계 냉동굴 수출시장에서 한국은 분석기간 평균 53.9%로 1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2019년 59.9%를 정점으로 하락하여 2025년 50.5%를 기록하였다. 같은 기간 일본은 12.5%에서 28.6%로 두 배 이상 상승하고 뉴질랜드는 17.6%에서 6.6%로 급락하여, 상위 구조가 한국·뉴질랜드 중심에서 한국·일본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중국도 4.5%에서 7.4%로 상승하여 2022년 뉴질랜드와 같은 수준에 이른다. 같은 기간(2019~2025년) 한국의 냉동굴 수출액은 연평균 0.6% 감소하는 데 그쳐 평균 46.7백만 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점유율 하락은 자국 수출의 감소보다는 경쟁국 수출 확대에 따른 상대적 하락으로 볼 수 있으며, 단일 경쟁국이 아닌 일본·중국의 동시 확대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구조적 성격을 지닌다.



Note: The UAE, France and the Netherlands are omitted from the figure for legibility, as their shares are below 3%.

Source: Author's calculation based on ITC Trade Map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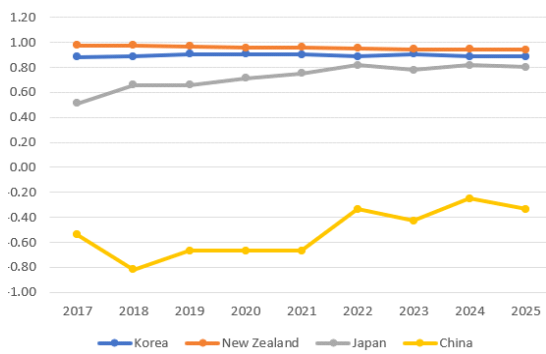
[Fig. 3] Trends in World Market Share of Prepared or Preserved Oysters by Country.

조제굴은 상반된 구조를 보인다. 중국이 평균 60.6%로 시장을 주도하고 한국은 25.4%로 2위에 머물러 있으며, 한국은 20.2%에서 28.6%로 상승한 반면, 중국은 63.1%에서 56.5%로 하락하여 양국 격차가 좁혀졌다. 다만 같은 기간(2019~2025년) 한국의 조제굴 수출액은 2022년 32.6백만 달러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세를 보여 연평균 증가율은 0.7%에 그쳤으며, 한국 굴 수출에서 조제굴이 차지하는 비중도 32~41% 수준에서 등락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점유율 상승은 수출 규모의 확대보다는 중국의 수출 감소에 따른 상대적 상승의 성격이 강하다.

2. 비교우위분석(RCA · RSCA)

RCA는 해당 품목이 자국 수출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 즉 산업 특화 정도를 측정한다.

냉동굴에서 RCA가 1을 넘어 수출 특화도가 높은 국가는 뉴질랜드(51.8), 한국(18.1), 일본(7.0)으로 나타났다. 다만 뉴질랜드의 평균값은 전반기의 높은 수준이 반영된 것으로, 전반(2017~2019년) 75.7에서 후반(2023~2025년) 34.2로 절반 이하로 축소된 반면 한국은 17.7에서 17.9로 안정적인



Note: Countries with low and stable index values are omitted for legibility.

Source: Author's calculation based on ITC Trade Map data

[Fig. 4] Trends in RSCA of Frozen Oysters by Coun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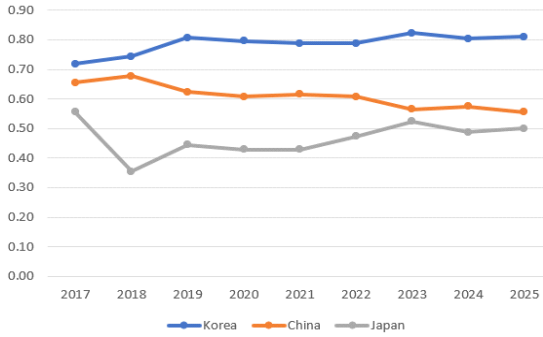
수준을 유지하였다. RSCA로 환산하면 각각 0.958과 0.894로, RCA에서 나타나는 격차만큼의 차이가 확인되지는 않는다. 일본은 같은 기간 4.3에서 9.0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되었다. 한편, 중국은 세계 최대 굴 생산국임에도 RCA가 0.3에 그치는데, 이는 중국의 전체 수출 규모에 비해 굴 수출 비중이 아주 낮기 때문으로 절대 수출 규모와 비교우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Fig. 4]).

조제굴에서는 시장점유율 순위와 수출 특화도(RCA) 순위가 역전된다. 점유율 2위인 한국의 RCA가 8.5로 가장 높고 점유율 1위인 중국은 4.2에 그치며, 추세도 한국은 7.4에서 9.7로 상승, 중국은 4.8에서 3.6으로 하락하였다. 중국이 물량 측면에서 세계 조제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산업 특화 관점에서는 한국이 조제굴에 더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Fig. 5]).

이상의 RCA 및 RSCA 분석 결과를 <Table 9>에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3. 주요 수입시장별 비교우위(MCA)

시장점유율과 RCA는 세계시장을 하나의 단위로 집계하므로, 경쟁력이 다수 시장에 고르게 형성된 것인지 소수 시장에 집중된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French, 2017).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개별 수입시장에서의 상대적 지위를 MCA로 측정하고 <Table 8>의 기준에 따라 유형화하였다. 분석 대상 수입시장은 품목별로 최근 5년(2021~2025년) 평균 세계 수입액 비중이 2% 이상인 시장으로 선정하였다.



Note: Countries with low and stable index values are omitted for legibility.

Source: Author's calculation based on ITC Trade Map data

[Fig. 5] Trends in RSCA of Prepared or Preserved Oysters by Country.

<Table 9> Level and change in RCA and RSCA by country

Product	Country	Early	Late	Change	Mean RCA	Mean RSCA	Assessment
Frozen	New Zealand	75.7	34.2	-41.5	51.8	0.958	Advantage, falling
	Korea	17.7	17.9	+0.2	18.1	0.894	Advantage, stable
	Japan	4.3	9.0	+4.7	7.0	0.72	Advantage, rising
	France	0.5	0.3	-0.2	0.4	-0.46	Disadvantage
	China	0.2	0.5	+0.3	0.3	-0.52	Disadvantage, easing
	USA	0.2	0.1	-0.1	0.1	-0.74	Disadvantage
Prepared or preserved	Korea	7.4	9.7	+2.3	8.5	0.79	Advantage, rising
	China	4.8	3.6	-1.2	4.2	0.61	Advantage, falling
	Japan	2.7	3.0	+0.3	2.8	0.47	Advantage, stable
	UAE	0.0	1.8	+1.8	0.7	-0.43	Disadvantage, entry
	France	0.4	0.2	-0.2	0.2	-0.62	Disadvantage
	Netherlands	0.0	0.5	+0.5	0.2	-0.76	Disadvantage, en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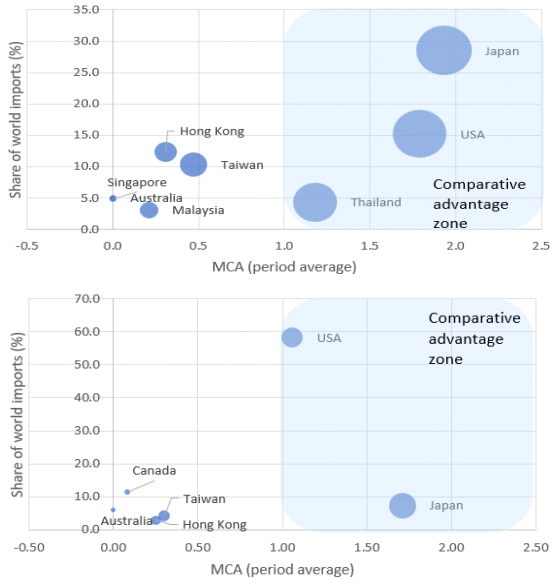
Note: "Early" and "Late" are the mean RCA for 2017~2019 and 2023~2025 respectively. The UAE's 2025 exports are unconfirmed and excluded from the calculation.

Source: Author's calculation based on ITC Trade Map data

수입 규모가 작은 시장은 소수 거래에 따라 한국산 점유율과 MCA가 크게 변동할 수 있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선정된 냉동굴 8개 시장과 조제굴 6개 시장은 각각 세계 수입의 83.7%, 90.2%를 차지한다. 중국은 굴 생산과 조제굴 수출을 주도하고 있으나, 수입 비중이 냉동굴 1.4%, 조제굴 0.2%에 불과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국산 냉동굴은 일본(1.93), 미국(1.79), 태국(1.18) 3개 시장에서만 1을 상회하며, 세 시장의 한국산 굴 점유율은 각각 96.3%, 89.8%, 58.9%이다. 나머지 시장은 모두 1을 크게 밑돌아, 한국산 점유율이 약 60% 이상인 시장과 25% 미만인 시장으로 뚜렷이 구분된다. 특히 최근 5년 기준 세계 냉동굴 수입의 22.7%를 차지하는 홍콩·대만에서 한국산 점유율이 각각 2017년 10.1%에서 2025년 6.8%로, 35.5%에서 17.5%로 하락하였다. 홍콩의 경우 2021년 21.7%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급락하여 최근의 하락세가 더욱 두드러진다. 같은 기간 중국의 세계 냉동굴 수출 점유율이 상승한 점을 함께 고려하면, 지리적·물류적으로 인접한 중국산에 의한 대체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산 조제굴은 일본(1.71)과 미국(1.06) 두 시장에서 모두 MCA가 1을 상회하여 한국산 조제굴의 수출 비중이 세계 평균 대비 높고, 비교우위가 실현되었다. 특히 세계 조제굴 수입의 58.3%(2017~2025년 평균 기준)를 차지하는 미국에서 2017년 1.14, 2025년 1.32로 우위가 강화되었다. 대만은 0.30으로 1을 밑돌지만 2017년 0.02에서 2025년 0.45로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반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입시장인 캐나다(11.4%)는 한국산 조제굴 점유율이 2.1%에 그치고 MCA도 2017년 0.11에서 2025년 0.02로 낮아져 사실상 미개척 시장으로 남아 있다. 호주는 2004년부터 한국산 굴에 대한 수입 제한조치를 유지하고 있어 분석기간 전체에 걸쳐 교역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았다(Huang and Park, 2024). 따라서 호주의 MCA 0.00은 경쟁력의 상대적 열위가 아니라 제도적 진입 제약에 따른 결과로, 다른 시장의 지수값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Note: Bubble size is proportional to the Korean share of each market; a minimum size is applied to markets with a share below 1.5%. The shaded area indicates the comparative advantage zone (MCA ≥ 1). The vertical scales differ between the upper and lower panels. Underlying values are reported in <Table 10>.

Source: Author's calculation based on ITC Trade Map data

[Fig. 6] Positioning of major import markets: frozen oysters(top) and prepared or preserved oysters(bottom).

분류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① 유형은 냉동굴 3개(세계 냉동굴 수입의 48.0%), 조제굴 2개(65.7%)이며, ④ 유형은 냉동굴 5개(35.7%), 조제굴 3개(20.3%)이다. 다만, ④ 유형 중 호주는 제도적 진입 제약에 따른 것으로 여타 시장과 구분된다. ③ 유형은 조제굴 대만 1개국(4.2%)으로, 아직 1을 밑돌지만 빠른 개선 추세를 보이는 시장에 해당한다. 조제굴은 세계 수입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시장에서 한국산이 우위를 확보한 반면,

<Table 10> Position and type of Korean oysters by major import market

Product	Market	Import share (%)	Korean share (%)	MCA	2017	2025	Type
Frozen	Japan	28.5	96.3	1.93	1.81	1.87	① Core
	USA	15.2	89.8	1.79	1.63	1.81	① Core
	Thailand	4.3	58.9	1.18	0.80	1.16	① Core (new)
	Taiwan	10.3	23.9	0.47	0.70	0.34	④ Eroding
	Hong Kong	12.4	15.6	0.31	0.20	0.13	④ Eroding
	Malaysia	3.1	10.7	0.21	0.25	0.06	④ Eroding
	Singapore	4.9	0.2	0.00	–	0.00	④ No entry
	Australia	5.0	0.0	0.00	0.00	0.00	④ Barrier
Prepared or preserved	Japan	7.4	43.0	1.71	1.07	2.89	① Core
	USA	58.3	26.6	1.06	1.14	1.32	① Core
	Taiwan	4.2	7.5	0.30	0.02	0.45	③ Expansion
	Hong Kong	2.9	6.2	0.25	0.45	0.16	④ Eroding
	Canada	11.4	2.1	0.08	0.11	0.02	④ Eroding
	Australia	6.0	0.1	0.00	0.00	0.00	④ Barrier

Note: 1. Type : ① MCA ≥ 1 and rising; ② MCA ≥ 1 and falling or unchanged (no market falls into this category); ③ MCA < 1 and rising; ④ MCA < 1 and falling or unchanged. A change of more than ±0.05 between 2017 and 2025 is treated as rising or falling.
2. Sub-labels : Core (MCA ≥ 1 in both years); Core (new) (MCA rose above 1 during the period); Expansion (MCA < 1 but rising); Eroding (MCA < 1 and falling); No entry (no recorded imports from Korea in 2017); Barrier (import restrictions in place).
3. Import share is measured over 2021–2025; Korean share and MCA are 2017–2025 averages.
4. – : denotes data not available.

Source: Author's calculation based on ITC Trade Map data

냉동굴은 우위 시장의 비중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그중 상당수가 하락 국면에 있다. 한편, ② 유형(MCA가 1 이상이면서 하락하는 시장)에 해당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한국산이 우위를 확보한 시장에서는 그 지위가 유지되거나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4. 상대 수출단가(RUV)

가격 및 품질 포지션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수출액을 수출 물량으로 나눈 수출단가를 산출하였다(<Table 11>). 제품 구성의 이질성이 큰 조제굴은 제외하고 냉동굴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의 냉동굴 수출단가는 분석기간 평균 6.76달러/kg으로, 중국(4.94$)과 미국(4.54$)보다 높으나

<Table 11> Export unit value and relative price of frozen oysters by country (USD/kg)

Country	2017	2021	2025	Mean price	Relative price
Korea	5.94	6.96	6.64	6.76	1.00
New Zealand	12.28	14.05	14.36	13.88	0.49
France	10.38	13.75	13.30	12.68	0.53
Japan	7.21	8.94	8.32	8.02	0.84
China	4.76	5.28	4.67	4.94	1.37
USA	3.91	3.56	7.36	4.54	1.49

Note: Mean price is the average over 2017~2025; 2017, 2021 and 2025 are shown as representative years. Relative price is Korea's mean price divided by each country's mean price; a value above 1 indicates a higher Korean price.

Source: Author's calculation based on ITC Trade Map data

일본(8.02$), 프랑스(12.68$)와 뉴질랜드(13.88$)보다 낮다. 상대 단가로 환산하면 중국의 1.37배, 미국의 1.49배인 반면, 일본의 0.84배, 프랑스의 0.53배, 뉴질랜드의 0.49배 수준이다. 한국산은 13~14달러대 고단가·저점유율의 뉴질랜드·프랑스, 5달러 내외 저단가·저점유율의 중국·미국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중간 대량 공급형이다. 이는 한국산 냉동굴이 중국산 대비 가격 경쟁력에서 열위인 동시에,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차별화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5. 소결

이상의 분석 결과는 <Table 12>와 같이 정리된다.

첫째, 두 품목 모두 RCA가 1을 상회하여 수출 특화도가 높으나 양상은 상반된다. 냉동굴은 점유율 1위(53.9%)이나 일본·중국의 수출 확대로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RCA는 뉴질랜드에 이어 2위로 수출 특화도가 대체로 안정적이다. 반면 조제굴은 점유율 2위(25.4%)이나 RCA는 8.5로 1위이며 추세도 상승하고 있다. 다만 두 품목 모두 한국의 수출액은 큰 변동이 없어, 점유율 변화는 자국 수출보다 경쟁국 수출 변화의 영향이 크다. 이는 시장 규모와 수출 특화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경쟁력 진단에 두 지표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둘째, 총량 지표가 보여주는 경쟁력이 실현되는 범위는 품목별로 다르다. MCA가 1을 상회하는 시장은 냉동굴이 8개 중 3개로 세계 수입의 48.0%인 반면, 조제굴은 6개 중 2개에 불과함에도 65.7%를 차지한다. 특히 세계 냉동굴 수입의 22.7%를 차지하는 홍콩·대만에서 한국산 점유율이 최근 하락하는 점은 총량 지표만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취약성이다. 가격 측면에서도 한국산 냉동굴은 저가 대량 공급과 고가 프리미엄 사이의 중간에 위치하여 포지션이 명확하지 않다.

셋째, 비관세조치가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호주는 두 품목 모두 분석기간 전체에 걸쳐 MCA가 0.00으로, 세계 냉동굴 수입의 5.0%와 조제굴 수입의 6.0%를 차지하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제약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세계 굴 산업 및 교역 동향과 국내 굴 산업·수출 현황을 검토하고, 주요 수출시장에서 한국산 굴의 수출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우리나라 굴 수출의 약 80%를 차지하는 냉동굴(HS 030712)과 조제굴(HS 160551)이며, 2017년부터 2025년까지의 무역통계를 이용하여 시장점유율(MS), 현시비교우위지수(RCA)와 현시

<Table 12> Summary of results by indicator

Indicator	Frozen Oysters	Prepared or preserved Oysters	Implication
World market share (avg.)	53.9%, 1st	25.4%, 2nd	Opposite volume positions
Trend in market share (Peak/Start → 2025)	59.9% → 50.5% ▼	20.2% → 28.6% ▲	Opposite trends
Mean RCA / RSCA	18.1 (2nd) / 0.894	8.5 (1st) / 0.787	Advantage in both products
Trend in RCA	17.7 → 17.9, flat	7.4 → 9.7 ▲	Deepening specialization in prepared or preserved oysters
Markets with MCA ≥ 1	3 of 8 (48.0% of imports)	2 of 6 (65.7%)	Advantage realized in key markets for processed; limited for frozen
Relative export price	1.37× China, 0.49× New Zealand	Not analyzed	Mid-price position

대칭비교우위지수(RSCA), 시장별 비교우위지수(MCA), 상대 수출단가(RUV)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서론에서 제기한 수출시장 집중 문제와의 연관성이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일본과 미국은 냉동굴과 조제굴 모두에서 MCA가 1을 상회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굴 수출의 약 72%가 집중된 주요 시장과 일치한다. 하지만 그 외 시장에서 우위가 형성되지 못했거나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 세계 조제굴 수입의 11.4%를 차지하면서도 한국산 점유율이 2.1%에 그친 캐나다는 미개척 상태로 남아 있고, 호주는 2004년부터 유지되고 있는 수입 제한조치로 진입 자체가 제약되어 있다. 이는 수출시장 다변화가 단순히 판로를 넓히는 과제가 아니라, 경쟁력이 미치지 못하는 시장에서 새롭게 우위를 형성하거나 제도적 장벽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임을 의미한다.

정책적으로는 총량 지표의 개선뿐만 아니라 시장별 경쟁력의 변화와 진입 여건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냉동굴의 경우 세계 수입의 22.7%를 차지하는 홍콩·대만 시장에서 한국산 점유율이 최근 하락하고 있어 기존 시장에서의 경쟁력 유지가 중요하다. 조제굴은 세계 수입의 11.4%를 차지하는 캐나다 시장에서 한국산 점유율이 2.1%, MCA가 0.08에 그쳐 시장 규모에 비해 한국산의 진출 수준이 낮은 만큼 신규 수요처 발굴이 요구된다. 한편, 호주는 세계 냉동굴과 조제굴 수입에서 각각 5.0%, 6.0%를 차지하고 있으나 수입 제한조치로 인해 MCA가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장 확대에 앞서 제도적 진입 여건에 대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다.

다만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국가별 무역통계를 기반으로 MS·RCA와 MCA를 산출하였으나, 수출국과 수입국의 신고 기준 및 집계 방식의 차이, 신고 누락 등에 따라 동일한 교역에 대해서도 수출통계와 수입통계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수출통계를 활용한 MS·RCA와 수입통계를 활용한 MCA의 분석 결과를 상호 비교할 때에는 이러한 거울통계(mirror statistics)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MCA와 RUV 등 무역통계 기반 지표는 품질·브랜드·유통 채널 등 비가격 경쟁요인을 직접 반영하지 못하므로, 실제 현장의 품질 경쟁력 평가와는 병행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관세조치의 영향을 호주 사례에 한정하여 정성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쳐, 여타 시장에서의 비관세조치 존재 여부와 그 정량적 효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넷째, 조제굴은 제품 구성의 이질성으로 인해 RUV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나, 세부 품목 단위의 자료가 확보될 경우 조제굴에 대한 가격 경쟁력 분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한국산 굴의 수출 경쟁력을 보다 면밀하게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Balassa B(1965). Trade Liberalisation and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The Manchester School, 33(2), 99~123. https://doi.org/10.1111/j.1467-9957.1965.tb00050.x

Dalum B, Laursen K and Villumsen G(1998). Structural Change in OECD Export Specialisation Patterns: de-specialisation and ‘Stickiness’,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Economics, 12(3), 423~443. https://doi.org/10.1080/02692179800000017

FAO(2026). Fish Stat J, Fisheries and Aquaculture. Retrieved from https://www.fao.org/fishery/en/statistics/software/fishstatj on August 22.

French S(2017).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What Is It Good For?,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06, 83~103.

Han SK and Choi JW(2018).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Korean Cosmetic Industry in China,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20(1), 111~130.

Huang SS and Park HJ(2024). Exploring New Target Countries for Oyster Exports and Strategies for Market Entry, Korea Maritime Institute.

ITC Trade Map(2026). Products exported/imported globally. Retrieved from https://www.trademap.org on August 22.

Kim CB and Lee MH(2017). Analysis on the Comparative Advantage and Competitiveness of Aquatic Products Trade in Korea. The Journal of shipping and logistics, 33, 433~455. http://dx.doi.org/10.37059/tjosal.2017.33..433

Kim DY and Lee GY(2022). Direction of Restructuring in Response to Structural Changes in the Korean Oyster Farming.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34(3), 404~414. http://dx.doi.org/10.13000/JFMSE.2022.6.34.3.404

Kim SK(2013). A Social Network Analysis for Fishery commodities International Trade Network. Journal of Maritime Business, 26, 27~56.

Korea Maritime Institute(2026). Monthly Fisheries Outlook on Oyster.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2019). An Analysis on the Export Competitiveness and Lifecycle of Korea's Major Processed Food Export Products.

Kwon OM and Kim BT(2021). An Analysis on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Fisheries Products to Korea's FTA Partners.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33(3), 584~596. https://doi.org/10.13000/JFMSE.2021.6.33.3.584

Korea Statistics Service(2026). Fishery Production Trend Survey. Retrieved from https://kosis.kr on August 22.

Korea Statistics Service(2026). Statistics on Shallow-Sea Aquaculture Rights. Retrieved from https://kosis.kr on August 22.

Korea Statistics Service(2026). Statistics on Fishery Products Processing. Retrieved from https://kosis.kr on August 22.

Laursen K(2015).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and the Alternatives as Measures of International Specialization, Eurasian Business Review, 5(1), 99~115. https://doi.org/10.1007/s40821-015-0017-1

Park JM(2014). A study on Korea's international trade networks of marine products by utilizing global social network analysis.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Park JM, Kim SK and Kim HH(2015). A Study on Oyster Trade Networks by Utilizing Social Network Analysis. Korea trade review, 40(2), 51~70.

Schott PK(2004). Across-Product Versus Within-Product Specialization in International Trade,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9(2), 647~678. https://doi.org/10.1162/0033553041382201

Seafood Export Information Portal(2026). Export and Import Statistics. Retrieved from https://www.kfishinfo.co.kr on August 22.

Seo JE, Ha MH and Kim CS(2024). Analysis of South Korea's Seafood Export Competitiveness: Comparative Analysis with Major Seafood Exporting Countries. Korea International Commercial Review, 39(4), 61~80. http://doi.org/10.18104/kalc.2024.39.4.61

TRASS(2025). Korea Trade Statistics. Retrieved from https://www.trass.or.kr

• Received : 02 September, 2026
• Revised : 28 September, 2026
• Accepted : 08 October, 2026